공군 법무관 훈련기 체험비행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실시한 KT-1훈련기 탑승 체험비행에 참가한 신임 공군 법무장교들이 훈련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투기 조종, 司試보다 어려워"

공군 법무장교 전투기 탑승 체험

"하늘에서 각종 계기판 스위치를 다루는 조종사들을 보니 차라리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이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13일 실시한 KT-1훈련기 탑승 체험비행에 참가한 신임 공군 법무장교 서효원(28)·백유흠(30) 중위의 비행소감이다.

이날 체험비행은 신임 법무장교들의 보임 전 공군화교육의 일환으로 공군 핵심전력인 조종사와 항공기의 이해·체험을 통해 공중작전의 법률지원요소 발굴과 항공 작전법에 관한 효율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장교들은 이날 최대상승비행·급선회·루프(수직으로 원을 그리는 기동)·8자 비행·사선비행·실속선회·원통을 그리는 기동 등 공중전투의 기본전술기동을 체험했다.

■ 독일 조기유학, 美 3개·英 6개 명문대 합격 정 보 인 양

"조기유학 성공 비결…자신감이죠"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정보인(19)양의 당찬 장래 희망이다.

정양은 올해 컬럼비아대·코넬대·시카고대 등 미국 대학 3곳과 런던정경대(LSE), 에딘버러대 등 영국 대학 6곳에 합격했다.

정양은 행복한 고민을 하다 컬럼비아대를 택했다.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겠다는 것.

"국제축구연맹 회장 되고 싶어"

정양은 컬럼비아대 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돼 입학 이후 특별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인턴 자리에서 우선권을 갖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양은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한 다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다.

12살 때 독일에 온 정양은 베를린에 있는 미국계 국제학교인 J.F. 케네디 스쿨을 다녔다.

영어도 독어도 말 할 줄 모른 채 독일에 온 정양은 처음에는 무척 힘들게 공부했다고 한다. 영어와 독일어를 따라잡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목표한 공부가 끝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

처음에는 수업시간에도 말이 없던 정양은 피나는 노력 끝에 10학년 때 전교 학생회장에 선출됐다.

어학에 자신감을 얻은 그녀는 성적도 두각을 나타내 9학년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케네디 스쿨을 수석 졸업했다.

정양은 학교 신문 편집장, 조정 선수, 오케스트라 오보에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교외 활동도 활발히 했다.

2004년부터 베를린과 브레멘에서 매년 열리는 모의 유엔대회에서 조직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정양은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며 미국 명문대에 합격한 것은 어머니의 도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혼자 공부했더라면 외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신감을 갖지 못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정양은 말했다.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 중요해"

어머니 허명숙(52)씨는 "조기 유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이 모두 그 나라의 문화와 풍속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씨가 아이와 함께 박물관에 자주 가고 현지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또 아이들을 방학 때마다 캠프에 보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사귀도록 했다.

정양은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공부할 경우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양은 "미국과 영국의 명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이 우수하고 교내외 활동도 활발하다"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는 탓에 정양은 축구에 관한 한 전문가 수준이다. 몰타 축구협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도 했다.

장래 희망을 묻자 대뜸 "FIFA 회장"이라고 대답할 만큼 축구에 대한 애착도 크다.

정양은 "독일 월드컵을 가까이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하리수, 고려대 행정대학원서 특강

연기자 겸 가수 하리수(31)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특강을 한다.

하리수는 내달 2일 오후 7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무대의 전면과 뒷면 : 대중예술인의 꿈'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최고관리과정 재학생은 주로 입법, 사법, 공기업, 금융, 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30~50대가 주를 이룬다.

하리수 측은 "고려대 행정대학원이 '대중문화계에서 하리수씨의 등장과 성공이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출현 자체가 리더십의 발현과도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김계란을 따라 배워라"

'2005 中 10대 걸출한 법관'에 뽑힌 조선족 김계란씨 이야기 화극 각색

2005년 중국 10대 걸출한 법관에 뽑힌 조선족 법관의 이야기가 화극(話劇)으로 만들어져 중국 무대에 오른다.

13일 중국 조선족 관련 인터넷매체 CK연우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시 평극단은 최근 선진 인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닝안(寧安)시 인민법원 판사 김계란(여)씨의 업적을 묘사한 연극 '김계란'을 창작했다.

"이 연극은 오래지 않아 관중들과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무단장시 평극단은 '모택동의 1960', '주은래와 대경사람', '그 봄날의 등소평' 등 우수한 극을 창작해 국가 문화부와 성(省), 시(市) 관련부문의 호평과 장려를 받은 헤이룽장성의 유명한 극단이다.

1990년 법관에 오른 뒤 지금까지 '백성들 마음 속의 훌륭한 법관', '전국 우수법관' 등 40여개 영예 칭호를 받은 김 판사는 10여년간 1천50여건의 사건을 심리했고, 이 중 심사기한을 넘겼거나 법규를 어긴 사건 등 미처리 사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사법부를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국의 정법기관과 법조인에게 2006년부터 김 판사를 따라 배우라고 통지하는 등 그는 조선족 출신 여성 판사로 중국 사회의 신망을 얻고 있다.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사진·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졸업 퍼레이드를 사열하며 지나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앞에서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말썽꾸러기' 英 해리 왕자 육사 졸업

이라크·아프간 배치 가능성

영국 왕실의 '말썽꾸러기'로 널리 알려진 해리(21) 왕자가 12일 영국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서 40주간 훈련 과정을 마치고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아버지 찰스 왕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다.

그는 이날 육군사관생도 450명이 참석한 졸업식에서 전통적인 퍼레이드에 참가한 뒤 왕실 근위기병대 제3연대의 장교로 임관되었다.

지난해 5월 이 학교에 들어간 해리는 여성에 약하고 파티식의 생활 양식과 파파라치 사진사들과의 충돌 등으로 유명하다.

이달말 80세가 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런던에서 서남쪽으로 65km 떨어진 샌드허스트 교정의 단상에서 손자 해리 등 육사 생도들이 펼친 졸업 퍼레이드를 사열했다.

찰스 왕세자도 아들 해리의 행진을 엘리자베스 여왕 옆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여왕은 살구색 오버코트를 입고 그에 어울리는 모자를 썼으며, 짧은 졸업 연설과 충고를 해주었다.

여왕은 "장교가 되려고 준비하는 것은 약간의 기초적 군사 절차들을 배우는 것 이상이며,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지도자가 되려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왕자의 지휘관들 중 한명인 세버스천 로버츠 소장은 해리가 왕실 근위기병대 제3연대 근무에 이어 12개월 내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리 자신도 만약 나라가 불러준다면 동료들과 함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할 결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간 말해 왔다.

"어머니는 인종차별 막아준 용맹한 보호자"

라이스 美 국무, 어머니 일화 소개

흑인 여성으로는 첫 미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흑백 인종차별에 맞서던 어머니의 일화를 소개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60년대 앨라배마주에서 성장한 라이스 장관은 잡지 굿 하우스키핑 어머니날 판과의 회견에서 어머니가 인종차별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던 "용맹한 보호자"였으며 "결국 딸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라이스장관은 흑백분리가 생활화됐던 버밍햄에서 여섯살이나 일곱살 때 부활절에 입을 새옷을 사러갔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인종 차별에 대항했는지 들려주었다.

당시 옷가게 점원이었던 중년 여성은 옷이 맞는지 입어보려하는 라이스를 의식해 라이스장관의 모친에게 창고쪽을 가리키며 "입어보려면 저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라이스장관의 어머니는 이때 "분명히 해야겠다"면서 "이걸 사려면 저기서 입어봐야 한다"면서 고객을 위한 탈의실을 가리켰다.

"그 중년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좋아요,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했다"고 라이스장관은 당시의 일을 전했다.

(재)광주은행장학회 장학금 8,900만원 전달

(재)광주은행장학회(이사장 정태석)는 13일 오후 3시 광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광주·전남지역 31개 대학생 64명에게 8천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광주은행 제공〉

김선우 성대 의대교수 제3상 임상시험 책임자

김선우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자사의 당뇨병치료제 '빌다글립틴(Vildagliptin.상품명 가브스)'의 글로벌 신약 허가를 위한 다국적 임상 3상 시험의 총괄연구책임자(PI)로 선정됐다.

내방

▲배종덕씨(사단법인 호남포럼 이사장) ▲정찬구씨(히딩크관광호텔 회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김영국(주 낙원 대표)씨 장남 형식군 김태수씨 장녀 명옥양=16일(일) 오후 1시 프린스호텔 2층 웨딩홀.

▲문병주씨 장남 승환군 이재화(광주시배구협회 전무이사·첨단고 교사)씨 장녀 수송양= 16일(일) 오후 2시 메리어트 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신현년(세무사 사무소 소장)씨 아들 정식군 정명자씨 딸 조민희양=23일(일) 오후 2시 대구시 남구 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아홀. 피로연 15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 본관 4층 청실.

▲배상국(화순군청 종합민원실장)씨 차남 현섭군 정광은씨 5녀 윤희양=15일(토) 오후 1시 광주 이화웨딩캐슬 2층 축복실.

▲박영애(이사벨라)씨 3남 김강호군 유성근씨 장녀 수연양=22일(토) 오후 4시 서울 래팡웨딩하우스 2층. 피로연 15일(토) 오후 4시 오페라하우스.

▲박원희씨 차남 시영군 공봉식씨 장녀 미경양=16일(일) 낮 12시 꿈의궁전 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홀.

▲손영건씨 막내 장노군 백윤순씨 장녀 선화양=15일(토) 낮 12시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민광식(해남 농협조합장)씨 장남 병학군 장성년(전 새마을운동 해남군지회장)씨 차녀 수영양=15일(토) 오후 1시 해남군 베르사유웨딩홀 061-537-1900

▲최석중(새마을금고 방림봉선지점)씨 장남 영열군 김성수(장성개별화물)씨 장녀 은정양=16일(일) 오전 11시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백정원씨 3남 광석군 최순이씨 장녀 박은아양=16일(일) 오전 11시40분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이영자씨 차남 노상우군 최홍남씨 장녀 성도양=16일(일) 낮 12시30분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송삼례씨 차남 이원국군 박상우씨 3녀 민효양=16일(일) 오후 1시10분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고 오승윤(화백)씨 차남 병재군 백윤수씨 장녀 연아양=16일(일) 오후 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강영순씨 장남 장환실군 이한일(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씨 차녀 연경양=16일(일) 오후 1시50분 광주상록예식장 3층 장미홀.

▲이동성(영광군 기획감사실장)씨 장남 태헌군 박영규(북광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씨 장녀 현미양=16일(일) 오후 1시40분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 2층 데이지홀.

동창·동문회

▲광주여고 총동창회(회장 김필식) 추억의 한마당 축제=15일(토) 오전 11시 동강대체육관.226-1642

▲북성중 제 14회 동창회(회장 송윤근) 월례회=14일(금) 오후 7시 선일농원 953-9008

▲북성중 제 15회 동창회(회장 박의재) 월례회=17일(월) 오후 6시30분 삼희불낙 376-3233

▲북성중 제 17회 동창회(회장 강지구) 월례회=17일(월) 오후 7시 일송정 525-9977

▲광주공고 총동창회(회장 김국웅) 이사회=17일(월) 오후 7시 아리랑뷔페 2층 백송실 575-8255

▲광주상고 제 12회 동창회(전성수) 정기총회=18일(화) 오후 6시 장가집 식당 364-3366

▲정읍 호남고 동문회=20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해물탕 011-9609-6780

종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도지원 광주북구분원(분원장 리형신) 정기총회=15일(토)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225-5631

▲의성김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김종련) 정기총회=15일(토) 오전 11시 마이웨딩타운(구 영산강예식장) 3층. 011-9771-4705

▲하동정씨 경렬공파 화수회 정기총회=15일(토) 오전 11시 북구 망월동 경렬사 광장. 회비 3천원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도지원 목포시신안군분원(분원장 리종민) 정기총회=17일(월) 오전 11시 새마을금고 3층(구 호남극장 옆). 225-5631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도지원 진도군분원(분원장 리길택) 정기총회=17일(월) 오전 11시 진도 향토문화회관. 061-540-3541

부음

▲박연애씨 별세 유윤석·춘석·남성·영자씨 모친상=발인 14일(금) 오전 9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실. 231-8905

▲박송지씨 별세 전종일·형식·영한·영옥씨 모친상 곽정완·황영일씨 빙모상=발인 14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231-8901

▲장영임씨 별세 이현·권·옥경·선·애리씨 모친상 임현택·신영호·강병수씨 빙모상=발인 14일(금) 금호장례식장 401호. 227-4383

▲최경애씨 별세 위유철·성미씨 모친상=발인 14일(금)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250-4405

▲김방남씨 별세 정선·정태·영태·복실·윤미씨 부친상 민만식·나성수씨 빙부상=발인 14일(금) 오전 10시 그린장례식장 12분향실 250-4412

▲최삼순씨 별세 임제성씨 모친상 박주홍·백형철·강상용씨 빙모상=발인 14일(금) 오전 9시 무등장례식장 201호 515-4488

▲김만길씨 별세 승호·연동·용출(변호사)·재열씨 부친상 이정국·송영선·문학두씨 빙부상=발인 15일(토) 오전 9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231-8902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문의 (062)521-1100

2000평의 주차장 무료이용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뒤(구 호전)
대표:(062)515-4488